편역자 후기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입지(立志) 사상은 특별하다. 조선 유학사에서 이전 학자들이 달리 강조해 저술한 일이 없었는데, 유독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따로 하나의 장으로 다룰 정도로 의미가 있고, 다른 글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호되게 비판한 신문화 운동가들조차도 선생의 이 입지만은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인들의 사고 습관에 맞게 범주별로 나열하여 논한 것이 아니기에, 편역자가 관련된 글을 모아 거기에 맞춰 편집하고 우리말로 옮겼다.

그리고 그 확장성을 위하여 본문을 영문으로 옮기고, 일반인과 조직의 리더를 위한 간략한 해설을 붙이며, 한자 뜻풀이도 수록하였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와 인명의 영문 표기는 주로 펑유란(Fung Yu-Lan)의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1953, Princeton University)와 『근사록』(近思錄)을 영역한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1967, Columbia University)를 따랐다. 이 책들도 본서처럼 영문으로 정확하게 옮길 수 없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파와 문맥에 따라 의역하여 같은 한자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체득하여 각자의 인생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끝으로 본서의 집필을 기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신 최영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9.

이 종 란